

제목 : 2021.2.10.(수)경인일보 「재정운영 분석점수 발표」 기사 관련

<언론 보도내용>

□ '21. 2. 10(수)경인일보 「재정운영 분석점수 발표」 기사에서

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재정분석 종합보고서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보고서들을 토대로 전국 지자체의 재정운영을 종합적으로 분석, 점수를 매겼으며 과천시는 비교적 순위가 낮았다고 보도

<과천시 입장>

□ 과천시 재정운영 분석점수 발표 기사 관련

- 지방재정 분석은 효율성, 계획성, 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천시는 효율성 지표에서는 상위 등급을 받을 정도로 안정적인 세입과 세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.
- 다만 세수 예측 및 집행과 관련이 있는 계획성 지표는 과천시 재건축 이주 및 대규모 투자 사업, 택지개발 등 변화가 많아 계획과 실제 집행상 차이가 발생한 측면이 있으며,
- 또한 건전성 지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과정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이 선수금으로 분류되어 부채가 급증한 것으로 계상되어 낮은 등급을 받았으나 이는 사업 진행 과정의 일시적인 현상으로 과천시에 실질적인 채무는 없으며 과천시의 재정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음.
- 이에 과천시는 전략적인 재정운영으로 지난해 모든 시민에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을 지급하였으며, 2021년 2월 5일 소상공인 긴급 지원대책으로 42억원을 편성한 바 있음.

○ 과천시는 앞으로 재정운영 전망의 정확성을 높이고, 변화된 재정여건에 안정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.